

고귀한 혈통, 수령님은 항일빨치산!

: 순수와 위험의 관점에서 본 북한 사회 '성분'과 불평등



북한의 인류학

저자 소개

조성우

1999년 대전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학부에 재학 중이다. 사회불평등에 관심이 있다.

목차

1. 들어가며

- 성분과 그 의미

2. 성분과 계급의 탄생

- 1) 항일빨치산과 김일성
- 2) 주민등록사업으로서의 성분분류사업
- 3) 오염된 성분 - 사돈의 팔촌까지?
- 4) 성분 개념의 모순 - '항일빨치산'과 '김일성파'의 동일화

3. 영화 《보증》을 통해 본 성분사업의 변화

- 1) 영화 제작의 시대적 배경
- 2) 《보증》 1부 〈생명의 기사〉 中
- 3) 《보증》 2부 〈어머니의 모습〉 中
- 4) 영화 내러티브 속 성분의 의의

4. 오염된 성분, 변화하는 현실

- 1) 김일성 그 이후
- 2) '고난의 행군' 시기의 성분
- 3) 백두혈통과 후계자론

5. 나가며

1. 들어가며

사회주의 이념형(idealtypus)에 따르면 계급 간 불평등은 타파해야 할 제일의 사회모순이다. 농민과 노동자로 대표되는 피지배 계급, 즉 프롤레타리아는 사회주의 건설을 통해 자본가 계급으로부터의 착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며,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자본주의적 인간형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을 막기 위해 프롤레타리아의 독재가 필요하다고 한다. 무산계급의 강력한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통해 구성되는 사회주의 정권의 최종적 목표는 전인민의 평등을 달성하는 무계급사회이다. 그러나 건국 이래 사회주의 이념을 택해 혁명을 고수해온 북한 사회의 모습을 생각할 때 사회주의 이념형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평등사회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3대에 걸친 세습 권력 아래 강력한 독재의 모습들은 종종 자유가 빼앗긴 억압적인 사회로 비추어지며, 외부와 타협하지 않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에는 주체적 권력을 향한 집권세력의 아집을 엿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북한의 정치적 생명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계급 담론과, 이를 통해 달성되는 '성분'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 사회를 분석해보려 한다. 북한 사회 내에서 계급과 성분의 의미가 변천해온 것을 이를 기획한 집권세력의 의도의 큰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성분분류사업의 큰 변곡점으로 인식되는 지점을 문화사업에 대한 분석, 특히 그중에서도 집권세력의 기획이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조선예술영화 《보증》을 분석함으로써 알아볼 것이다. 이후에는 김일성 사후 김정일과 김정은 시대에 대해서는 '성분'의 현주소와 잔재 정도를 짚어볼 것이다. 그럼으로써 북한 사회가 가지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모순과 괴리를 포착하고, 이를 특징짓는 '성분'이란 개념이 가져다주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인류학자 메리 더글라스(Mary Douglas)의 대표작인 '순수와 위험(Purity and Danger)'에서 제시한 인류학적 분석에 따르면, 무엇이 더러우며 무엇이 '순수하게' 깨끗한 것인지가 하나의 문화적 체계로 규정된다고 한다. '오염'되어 '불결'한 것은 곧 '위험'한 것으로 연결되고, 공포의 대상이 된다. 이에 반해 '순수'와 '청결'은 곧 제의적 '성스러움'에 연결되고, 이러한 '정(淨)'과 '부정(不淨)'의 구분은 그 체계의 외연과 내연을 경계 짓는 핵심 기제가 된다. 분석에 앞서 이러한 '순수와 위험'의 관념이 북한 사회 전반에 걸친 '성분'과, 성분의 정점으로서 최고지도자 가족을 뜻하는 '백두혈통' 등이 북한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 기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다.

※ 성분과 그 의미

북한 사회의 성분은 크게 핵심, 동요, 적대의 3개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안에는 다시 55개의 부류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구분은 아래와 같다(사회안전부 1993: 143).

계급	부류
핵심	혁명가, 혁명가 가족, 혁명가 유가족, 영예군인, 영예전상자, 접견자, 영웅, 공로자, 제대군인, 피살자가족, 전사자가족, 사회주의 애국 희생자 가족
동요	인민군대 입대 기피자, 인민군대 대렬도주자, 귀환군인, 귀환사민, 반동단체 가담자, 일제기관 복무자, 해방전사, 건설대 제대자, 의거입북자, 10대지대 관계자, 금강학원 관계자, 정치범교화출소자, 종교인, 월남자 가족, 처단된자가족, 체포된자 가족, 정치범 교화자가족, 포로되었다가 돌아오지 않은자의 가족, 해외도주자 가족, 지주가족, 부농가족, 예속자본가 가족, 친일파 가족, 친미파가족, 악질종교인 가족, 종파분자 가족, 종파련루자 가족, 간첩가족, 농촌십장가족, 기업가가족, 상인가족
적대	지주, 부농, 예속자본가, 친일파, 친미파, 악질종교인, 종파분자, 종파련루자, 간첩, 농촌십장, 기업가, 상인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북한의 사회주의 사회를 북한 외 자본주의 사회에 등치하여 바라보는 것이다. 현재 북한 사회에서 ‘성분’이란 전통적 의미의 계급도 아니며, 민주적인 정치 담론이나 신분제와 같은 전근대적인 것은 더욱 아니다. 오히려 아주 정교하게 짜인 통제의 기제이자, 북한의 전체주의적 사회가 스스로 재생산하고 있는 하나의 ‘체계’이다. 따라서 성분을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객관적 지

표나 정치적 계급 담론 이상으로, '문화적' 기능을 하는 하나의 총체로 바라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2. 성분과 계급의 탄생

항일빨치산과 김일성

북한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이 해방 전 일제에 대항한 항일빨치산 출신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대한민국에서 그 진위 여부를 두고 시비를 따지는 일도 있었고, 실제로 김일성이 인민대중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1945년 10월 14일의 '평양시 민중대회', '항일영웅 김일성 장군'이 예상보다 젊다며(당시 나이 33세) 그를 의심하는 이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여부가 어떻든 그는 자신을 항일빨치산으로서의 정체성을 굳혀나갔으며, 항일 이데올로기는 북한 건국 초창기 권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해방 직후 김일성의 항일운동을 과장하여 선전되기 시작하였으며, 1949년 6월 5일자 로동신문은 보천보전투 승리 12주년 기사에서

김일성의 역할과 사실관계를 과장되게 기사화하고 있다(김용현, 2002). 이후 항일빨치산에 대한 '회상'은 김일성의 정치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의 제일주자가 되었다. 총 8권의 김일성의 회상기 〈세기와 더불어〉(김일성, 1992~1998)와, 김일성과 함께한 빨치산들이 쓴 총 20권 분량의 〈항일빨치산참가자들의 회상기〉(2005~2013) 등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회상의 형식으로 재현되는 항일빨치산 활동과 업적이 김일성이 정권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상의 진실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항일투쟁이 북한에 가져온 파급력이 상당했음에 주목해보자. 북한의 사회주의적 사상의 핵심이 공산주의에 있다기보단 '항일'에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김일성과 그의 측근들은 항일투쟁과 민족해방을 강조했으며, 이는 '조선혁명의 특수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

“내가 맑스-레닌주의고전들에서는 노동계급의 계급적해방이 선차이고 민족적해방이 후차라고 했지만 우리 나라는 우선 일제의 기반에서 벗어나야 노동자, 농민이 계급적으로도 해방될수 있지 않는가고 물은적이 있었다. 이것은 그 당시 우리 동무들속에서 많이 논의되고있던 문제였다. ...

나는 맑스-레닌주의고전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종주국에서의 혁명과 식민지나라들에서의 혁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다고 하면서 종주국에서의 혁명승리가 가지는 의의만을 강조하고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나라 경우에는 일본노동계급이 혁명에서 승리해야 나라가 독립될수 있단 말이 아닌가, 우리는 그들이 승리할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어야 한단 말인가고 또 물었다.”¹⁾

김일성이 회고록에서 직접 언급한 바에 따라 그의 사상적 특징을 좇으면, 맑스-레닌주의의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통한 투쟁보다, 조선의 경우 일제의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나는 '민족적해방'이 우선함을 알 수 있다. 해방 이후 비록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강조하는 방향

1)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1권, pp.217-218.

으로 조선로동당은 노선을 바꾸어나갔지만 이는 해방에 따른 필연적인 수준이었을 뿐, 항일투쟁에 대한 낭만화와 권력화의 작업은 그치지 않았다. 성분분류에서도 알 수 있듯, 핵심계급에 속하는 ‘혁명가’, ‘군인’, ‘유가족’ 등의 경우 항일투쟁과 한국전쟁에서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에 따라 부여받은 사회적 지위이다. 국가에 몸 바치는 ‘애국자’의 희생정신에 대한 찬양과 이를 김일성 자신의 항일투쟁기의 과장적 선전과 결부시킴으로써 북한에서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새로운 편성 기준이 생겨났으며, 이는 이후 성분분류사업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²⁾

주민등록사업으로서의 성분분류사업

정부 수립 후 북한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실현하기 위해 인민들의 계급구성을 파악할 필요성을 느낀다. 명목은 주민등록이었으나 암암리에 실시된 성분분류에 의하여 주민계층을 세부적으로 분리하여 놓고 성분에 의한 포용과 숙청, 감시, 통제 및 평가, 보상을 통해 주민을 통제해왔다(전혜란, 2012). 표면상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당의 ‘균중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즉 사회주의 건설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위해 만들어진 성분분류사업은 1958년 중앙당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집중지도를 실시하여 인민들을 핵심, 동요, 적대의 3개 계급으로 분류한 것을 시작으로 1964년에 5년에 걸쳐 실시된 주민등록사업과 51개의 성분분류의 도입, 1972년의 주민요해사업, 1983년의 공민증갱신사업 등을 통해 누가 당의 편이고 적인지(혹은 적이 될 수 있는지)를 규정해나갔다. 이외에도 특별관리, 정치적 숙청, 사회

2) 애초 남한의 민족주의와 달리 공산주의 노선을 택한 북한에서 ‘애국자’를 칭송한다는 것은 다소 이념적 모순을 담고 있는 것이다. 다만 북한의 특수한 정치적 환경에 따른 선택과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적 낙인 등을 통해 성분으로 인한 주민통제는 수시로 이루어졌으며, 일생에 걸친 지속적인 관리와 통제에 의해 북한 주민들은 성분을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제로 인식하고 체화해나갔다. 이는 주민등록에 명시되어 있는 문구에 의한 기계적인 분류 이상으로, 목시적 사회적 차별의 근거가 되었으며, 인간관계 등 사적인 일부터 대중동원 등의 공적 공간에서의 일까지 넓은 스펙트럼에서 한 인간 존재가 위치 지어지는 사회적 기제의 핵심이 된다.

오염된 성분 - 사돈의 팔촌까지?

성분에 의한 주민통제에 있어 가장 억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 각자의 언행이 아니라 가족력에 의해 그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부모님은 물론이고, 친인척과 배우자, 자식도 예외는 아니다. 애초 불순분자를 적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교한 감시 시스템을 고려할 때, 또 전체주의적 이념 하에 수령이 제시한 혁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인생의 과업으로 주입받는 북한 사회의 특성상 가족 내에서도 성분문제는 지배적인 담론의 하나이다. 반동적인 언행을 하는 가족을 가족이 고발한다든지, 성분에 의해 안 좋은 일을 당한 가족구성원의 이야기를 쉬쉬하면 그의 존재를 지운다든지 하는 것은 북한 사회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설사 성분이 공적으로 문제시된 적이 없다 하더라도 북한 사람들은 성분이 나쁜 가정환경을 가진 사람과의 결혼을 꺼리는 등 성분은 사적인 개인사에도 역시 파고든다.

비공식 영역을 벗어나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에서 개인은 특히나 성분에 의한 제약을 받는다. 특정한 중요 직책을 맡을 때에는 직계로 6촌, 외가로 4촌, 처가로 3촌 이상 문제가 되는 대상이 없어야 한다고 한다(전혜란 2013: 26).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분은 출세를

위해서는 철저히 순수성을 유지하거나, 혹은 그러한 것으로 최소한 보이게 하기 위한 가림막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성분의 오염 - '항일빨치산'과 '김일성파'의 동일화

“당창건을 위하여서는 공산주의대렬내에서 종파주의, 기회주의 등 불순한 사상과 무자비하게 투쟁하며 혁명대오의 조직사상적순결성을 고수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는 한때 조선인공산주의자들속에서 종파분자들이 파쟁에 광분함으로써 공산주의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쓰라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그러므로 우리는 이자들과 추호도 타협없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당조직과 혁명대오내에 어떠한 종파행동이나 적대사상도 발붙일 틈을 주지 말도록 해야 한다.”³⁾

한국전쟁 이후 1956년 6월부터 8월까지 일어난 8월 종파 사건⁴⁾으로 항일빨치산파를 제외한 소련파, 연안파 등의 당내 다른 정파를 없앤 김일성은 장악한 권력을 바탕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나간다. 모든 인민을 '혁명'이라는 하나의 가치 아래 묶어두고 혁명의 수뇌로서의 자신과 당에 충성할 인민을 만들기 위한 통제기제를 창조해낸 것이다. 혁명의 기치는 조선로동당이 어떠한 비판도 배제하며 당과 프롤레타리아 인민을 동일시하며 '순수한' 의미에서의 독재를 재현해나가는 원동력이 된다.

건국 초기 다양한 종파의 공산주의자들이 활발히 논의하여 만들

3) 김일성, 1979, 『김일성저작집』 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종파주의를 청산하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자〉 중.

4) 연안파와 소련파는 민주집중제에 종파활동의 자유와 종파유익설을 주장하였고, 김일성은 이들이 수정주의에 빠졌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반당종파분자'를 축출하였다. 이후 반종파주의는 조선로동당의 주요 노선 중 하나로 자리 잡는다.

어가던 북한의 사회주의는 이 사건을 계기로 수령을 중심으로 창조되는 혁명의 순수성에 의해 수령을 지지하는 것은 '혁명'으로, 그렇지 않은 것은 '반혁명'이 되었다. 실제로 북한 사회의 성분에 있어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해방 전 김일성과의 항일빨치산을 함께한 경력이다. 같은 빨치산이라고 하더라도 김일성이나 이와 관련된 인물(예를 들어, 아버지 김형직 등)과 연이 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핵심 계층으로 분류되었으며, 설사 빨치산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김일성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은 좋은 성분으로, 혹은 빨치산이었다 하더라도 김일성과 마찰이 있던 사람과 그 후손은 좋지 않은 성분이 되었다.

순수한 의미에서의 성분은 김일성에 의한 정치화로 인해 오염되어갔으며, 새로운 '순수성'은 탄생하였다. 이제 성분이 '좋다'는 것의 의미는 '백두혈통'에 보다 가깝다는 의미가 되었으며, 계급을 타파하는 혁명은 새로운 계급성을 창조했다. 수령을 정점으로 세워진 혁명의 피라미드가 견고해질수록 북한 사회의 이론적 기초였던 맑스-레닌주의적 혁명과는 거리가 멀어져 갔다. 북한 사회 내에서 계급담론은 이제 더이상 실체를 갖기 어려웠고, 곧 '혈통'이라는 다소 느슨한 개념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북한의 인민들은 이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권유지수단이자 주민통제수단이 된 '성분'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은 천천히 쌓여갔으며, 인민과 정권 사이의 미묘한 긴장 관계가 계속된다. 이러한 변화를 북한 정권 역시 몰랐을 리 없었는데, 이에 따라 집권세력은 성분분류사업에 대한 이념적 방향에 직·간접적 수정을 제안하기에 나선다. 특히 김일성의 집권 말기 후계자로 부상하며 예술작품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던 김정일의 등장으로 성분의 정치적 노선에 대한 방향 제시는 예술작품을 통해 나타났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성분'을 주제로 한 영화를 통해 시대상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선 성분을 주제로 한 영화의 대표작 《보증》을 통해 성분사업에
의 변화를 보려고 한다.

3. 영화 《보증》을 통해 본 성분사업의 변화

영화 제작의 시대적 배경

성분분류제도에서의 주민통제의 어려움은 내부적 모순과 한계에 더불어 90년대 들어 연이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로 인한 북한 정권의 대외적 위기가 대내적으로 이어지며 심각한 수준이 되었다. 이에 대한 전조를 알리던 80년대, 북한 정부는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회유의 정책을 만들어간다. 영화 《보증》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 정권의 치밀한 기획 아래 만들어졌으며, 예술영화라고 하여도 결코 '사회적인 것', 즉 이념과 사상에 무관하지 않은 특징을 가진 하나의 '사회극'으로서 성분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교훈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영화 《보증》은 그 자체로 북한 정권이 제시하는 이상적 성분사업에 대한 교시이자 인민들에 대한 교양작업이다.

《보증》 1부 〈생명의 기사〉 中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대흥단 창작단이 1987년 제작한 영화 《보증》은 1부와 2부로 내용이 연결되게끔 제작된 연작 영화이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영화는 1부와 2부 모두 '화학연합기업소'를 배경으로 하며, 이를 관통하는 표면상의 주제는 외국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비료생산설비의 시운전을 성공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성분에 얽매어 있으며, 과학과 기술 앞에 '주체사상'을 세우기 위한 혁명적인 투쟁은 곧 정치적 투쟁이 된다. 분석에 앞서 간단한 줄거리를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화학연합기업소의 당 책임비서 박신혁은 비료생산 시운전에 앞서 신기술을 가진 외국계 기업 텍스회사의 힘을 빌리자는 윤 부부장 동지의 말에 고민에 빠진다. 조선의 힘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박신혁은 오랫동안 공장에 나오지 않았던 조선의 기술자 원석해를 찾아가는다. 박신혁은 다름 아닌 자산가 집안 출신이라는 성분문제로 인해 실패를 두려워하던 원석해에게 당적 보증을 약속하며 그를 설득해낸다. 한편, 월남자의 자식이라는 성분문제로 괴로워하던 공장 노동자 허진성이 성분 때문에 입당청원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신혁은 그를 보증하며 입당을 추진한다. 하지만 공장에 나가던 원석해는 부부장 동지의 견제로 더 깊은 고민에 빠지고, 허진성은 당 앞에 진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괴로워한다. 공장에 방문한 텍스회사 기술단은 자신들이 없으면 실패할 것이라고 거들먹대자, 원석해 기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며 면박을 주어 텍스회사를 철수하게 만든다. 이후 그는 시운전 계획에 몰두한다. 허진성은 자신의 과오로 박신혁의 보증마저 거절하며 입당 포기를 선언하는데, 그 과오란 오래 전 반동분자들이 자신의 집에 찾아왔을 때 재워준 것임을 박신혁은 알게 되고 이를 도당에 알린다. 도의 상급 당은 허진성의 진실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박신혁에게 알려 그의 입당을 인용한다. 자신의 잘못을 포용해준 당 앞에 허진성은 눈물을 흘리며 당적을 받아들인다.”

원석해와 허진성의 성분문제라는 큰 두 줄기가 한 명의 책임비서의 당적 보증이라는 정치적 수단 아래에서 흘러간다. 당의 믿음이 진실함을 '심장으로' 느껴야 한다고 주장하는 책임비서는 허진성의 과오를 면밀히 조사하면서도 그가 25년간 성실히 복무한 노동자임을 고려해 보증에 나선다.



[그림 1] 윤철이 성분으로 인해 레성과의 관계를 마다하자 다그치는 태수(땅크) ©Youtube 'Sveta T'

성분문제는 당의 '군중노선의 관철'이라는 정치적 목적 이외에도 정치적 순수성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북한 사회에서 연애와 혼사 같은 개인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극 중 허진성의 딸인 레성은 직물공장 기사 윤철과 연인관계에 있지만 윤철은 레성의 '나쁜' 성분 때문에 레성을 회피한다. 책임비서와 같이 당의 성실한 일꾼으로 그려지는 태수(극 중 별명 땅크)는 감정의 진실함을 역설하며 성분에 있어서의 타산을 비판한다. 그러나 곧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태수가 빨치산의 후예이자 혁명 유가족이라는

핵심 계급에 속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사 중 드러난다.



[그림 2] 당의 보증으로 결국 입당하며 눈물을 흘리는 허진성.
©Youtube 'Sveta T'

1부는 좋지 않은 성분에도 불구하고 당에 충실히 복무하며 자신의 과오를 철저히 총화해온 허진성이 입당하면서 마무리된다. 동요 계급이면서도 당의 혁명노선에 충실했던 그는 곧 제목에서 나타난 '생명의 기사'이며, 끝내 당의 믿음을 받아 성분이 개선되는 인물이다. 애초 기획된 '성분'의 분류기준에서처럼, 허진성은 자신의 과오로 인해 동요하고 번뇌한다. 앞서 서술한 줄거리에서처럼 그는 이로 인해 당의 보증을 통한 권유에도 입당을 거절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상황과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게 그를 품어주며 입당시킨다는 것의 의미는 성분이 고정불변한 계급이 아니며, 당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영화의 메시지는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서 상당한 것일 것이다.

영화의 표면적인 주제인 '화학연합기합소'에서의 비료 생산 시운

전 기술의 문제 역시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이며 '성분' 역시 강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극 중 알 수 있다. 애초 기술자 원석해가 북한 사회 내 상당한 엘리트로 능력 있는 인물임에도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없이 배제되어 있던 것의 원인은 '성분'이었다.

윤 부부장의 태도는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다소간 외세에 타협적인 수정주의로 보일 수 있다. 이는 '조선의 기술자'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우리 스스로' 해결하자는 노동자와 책임비서의 태도와 상반되는 것으로, 윤 부부장과 책임비서 사이의 갈등은 공장 시운전과 성분문제 모두에서 평행선을 달리며 드러내고 있다. '주체', '우리식 사회주의' 등을 주장하며 외세에 타협하지 않는 북한의 현실과는 달리 영화 초반 윤 부부장의 말이 지지를 받는 것은 북한 사회 내에서 '좋은 성분'의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면 이후의 일의 해결에 있어서 경제적 효율성이 지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수정주의적 입장이 '올곧은' 책임비서 박신혁과 '반성한' 기술자 원석해에게 저지당하는 것을 통해 '온전히 순수한'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 역시 보여주고 있다.

《보증》 2부 〈어머니의 모습〉 中

2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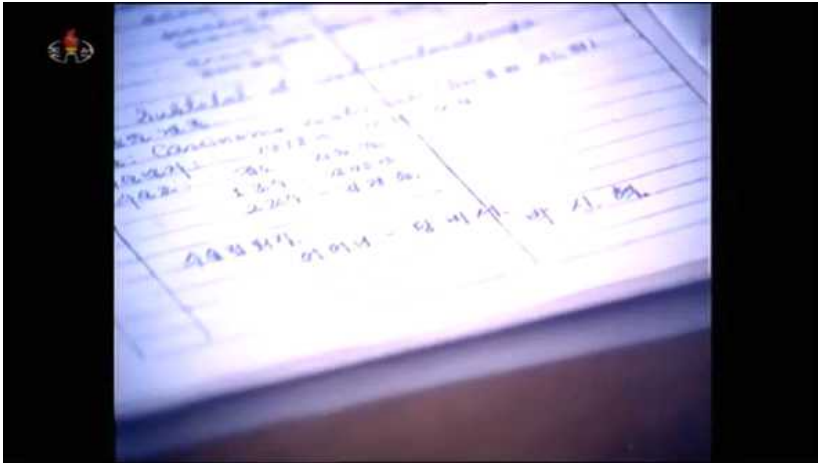
“원석해 기사가 총화가 두려워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은 박신혁은 그에게 연락을 취해 그가 소식과 달리 병상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사실 원석해 기사는 오랜 세월 병을 앓아왔으며 공장 문제로 인해 병이 악화되었던 것이다. 당 간부들은 박신혁이 평양에 가 자리를 비운 사이 원석해를 둘러싸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며 모함하고, 설상가상으로 당에 대한 군중노선의 진실성이 의심받는다. 박신혁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군중노선의 일관성을 견지해나가고 공장의 기술문제에도 조선 기술자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고수한다. 핵심기술자인 원석해는 쓰러져 평양에서 수술을 받게 되며, 박신혁은 이에 원석해 어머니의 부탁을 받아 대신 입회한다.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은 원석해는 다시 기술문제에 매진하지만 몸은 따라주지 않는다. 원석해를 집으로 돌려보낸 박신혁은 그날 저녁 공장 시운전이 폭발하는 꿈을 꾸고 불길한 느낌에 공장에서 밤을 지새운다. 원석해는 박신혁의 예상대로 그날 밤 홀로 시운전을 하러 공장에 왔고, 박신혁은 원석해와 같이 죽음을 약속하고 시운전에 가담한다. 공장은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간부들은 수령이 직접 현지도하는 영광의 자리를 갖는데, 성분을 문제 삼아 원석해는 그 자리에서 빠지게 된다. 이를 뒤늦게 안 박신혁은 상급 당에 보고하고, 원석해가 평양에 가 수령을 만나고 표창을 받게 한다.”

1부 직후의 이야기인 2부는 허진성 중심의 플롯을 마무리짓고 다시 원석해의 이야기로 돌아온다. 레성과 윤철 사이의 사랑 다툼의 와중 박신혁이 평양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하는 영화는 1부와 2부의 구성에 걸맞게 별도의 흐름을 구성하면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본 영화의 메인 플롯이 될 것임을 예고한다.



[그림 3] 뇌물을 바치는 당 간부에게 물건을 돌려주는 책임비서 박신혁. ©Youtube 'Sveta T'

영화 초반부 뇌물을 바치는 당 간부의 모습이나 치약을 사려는 원석해 기사에게 물자가 부족하다고 팔지 않은 상점이 간부들에게는 물건을 공급하는 등 부패의 문제를 박신혁이 알게 된다. 이 영화는 성분문제를 주제로 한다는 것 외에도 북한 사회의 당 간부로 인한 비리와 부패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도 한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다. 원석해에게 물자를 의도적으로 팔지 않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배급에 있어서 성분에 따른 차별이 현현함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역시 정치적 '순수성'을 가진 박신혁이 이를 해결함에 따라 쉽게 '오염'될 수 있는 경제의 문제 사회주의적 '순수성'을 회복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림 4] '어머니-당'의 직접적인 등치가 나타나는 수술 입회란.

©Youtube 'Sveta T'

《보증》 2부는 1부에 비해 당의 '어머니다움'을 강조한다. 북한에서 조선로동당이 어머니에 비유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여기서 어머니는 동요와 적대 계급을 모두 혁명노선에 포섭하는 포용성과 더불어 이들을 다그쳐 '옳은 길'로 인도한다는 교육자의 이미지도 가진다.

수술 이후 회복한 원석해가 목숨을 걸고 시운전을 성공시킨 이후, '위대한 수령'이 이에 기뻐하며 현지지도를 하러 왔을 때 원석해는 '성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배제된다. 이는 실제로 일의 해결에는 별 기여한 바 없는 윤 부부장 등의 당 간부가 이 행사에 참여한 것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가장 '순수한' 성분으로서의 '백두혈통'의 최고지도자가 참석하는 자리에 '그런' 사람을 참여시킬 수는 없지 않냐는 윤 부부장의 말에는 성분이 가지는 정치적 차별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 사회에서의 '관행'이자 '자연스러운 것'이지, 이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북한 정권의 메시지는 아니다. 결국 책임비서의 배려로 평양에 가
최고지도자를 만나는 ‘기술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되
찾는 원석해는 성분 문제를 뒤로 하고 ‘실력’을 통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는 북한 정권의 메시지를 엿볼 수 있다.

영화 내러티브 속 성분의 의의

조선예술영화 《보증》은 사회계급으로서의 성분을 직접적인 소재
의 하나로 하여 조선로동당의 군중노선을 드러낸다. 즉, 영화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의 성분, 성분에 대한 인물들의 태도, 그리고 그로
인한 인물간의 관계 변화는 영화 《보증》이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예
술영화’를 넘어서 이미 하나의 ‘사회극’이며 당의 군중노선의 관철이
자 선전인 것이다. 당의 이데올로기를 담지하는 인물로 볼 수 있는
책임비서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성분에 문제가 있는 인물(기술자 원
석해, 용접기사 허진성 등)을 당의 이름으로 보증하며 ‘혁명’이라는
하나의 가치 아래의 포섭할 수 있음은 이 영화를 관통하는 핵심 주
제이다. 자산가 출신(원석해), 월남자 가족 및 반동세력에 가담한 과
거(허진성)은 북한 사회 내에 동요계층과 적대계층을 아울러 북한
정권에 반하는 세력으로 간주되며 체계적인 성분 사업을 통해 차별
받아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책임비서 앞에서 끊임없는 당 앞의 충
성과 충화를 통해 두 인물 모두 보증을 받아 당의 인정을 받으며,
이때 당은 자신에 반하는 사람들마저 품어주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 영화가 북한에서 상영된 이후 주민들이 어머니당의 위
대함’에 감사와 고마움의 정으로 눈물을 적셨다는 일화는 결국 영화
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사회 속에서 실현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실지 영화에서 ‘좋지 않은 성분’으로 표상되는 사람들의

과오라고 할 만한 것은 영화 바깥사람들로 하여금 의아함을 자아낸다. 원석해의 경우 분단 이전 자산가 집안 출신이라는 것 이외에는 혁명에 충실했던 사람이었고, 전쟁 중 아버지가 월남한 허진성의 경우 저지른 과오란 반동세력들의 협박으로 하루 저녁 집에서 재워준 것이 다이기 때문이다. 실상 이들은 자신들의 업적보다는 조상의 행적으로 평가받은 것이며, 반동적인 행위랄 것도 영화적 연출을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매우 사소한 편이다. 그러나 성분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 낙인으로서의 성분은 허진성의 25년에 걸친 노동자로서의 업적도 지울 만큼 지속적인 것이며, 성분 차별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은 당으로부터의 보증과 인정이 필요한 것으로 이를 위해 목숨을 불사를 수도 있어야 한다는 당위를 전제하고 있다.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에서 자란 사람들이 보기에 '연좌제'에 가까운 혈족 연대책임은 전근대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족 전체의 운명이 걸릴 수밖에 없는 탓에 성분을 좌우하는 당의 권력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성분은 효과적인 주민통제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영화를 통해 북한 정권이 역설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믿음은 충성을 낳고, 의심은 반역을 낳는다.'는 당과 인민 사이의 관계의 신뢰성이다. 성분에 따른 직간접적 차별에 지친 인민들에게 과거의 과오가 아닌 현행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하고 당은 이런 지지에 보상을 제공할 인민을 위한 기구임을 다시 한번 선전하는 것이다. 현실이 어떻든 간, 이러한 당과 수령 중심의 이데올로기의 문화예술을 통한 선전으로 인민들은 자발성과 무관하게 회유되고 설득되어야만 하는 존재로서 당의 기획 아래 규정되는 존재로 규명된다.

4. 오염된 성분, 변화하는 현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은 그 제약적 권력을 가진 채로 끝내 서거하였다. 그가 만들어낸 지배 체계로서의 '성분'은 체계의 정점을 잃어버림으로써 혼란을 맞이한다. 북한 정권은 혼란을 잠재우고 후계자 김정일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주민에 대한 억압과 통제, 성분 분류를 강화하였으며, 김일성의 상 중 사소한 일탈도 강하게 처벌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 정권의 변화와 더불어 북한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악화되어 수백 만이 아사하는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한 차례 유의미한 변화가 생긴다. 인민들의 삶에의 직접적 타격이 가해졌기에 체제는 다시 위협에 휩싸인 것이다. 그러나 위기상황 속 '오염의 위험' 앞에서 '순수성'에 대한 고집은 더욱 강해졌다.

‘고난의 행군’ 시기의 성분

김일성종합대학과 만경대혁명학원 출신, 백두혈통의 친인척, 빨치산 1, 2세대는 조선로동당의 지속적인 포섭 노력으로 80년대 이후 후계자로 지목된 김정일을 지지하는 핵심 세력이 된다. 하지만 역시 성분사업은 김일성 때와 마찬가지로 최고지도자와의 개인적인 친분 등 사회적 자본이라 할 만한 것들로 다시 재편되어갔다. 같은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자라고 해도 김정일이 졸업한 김일성종합대학에서의 동창들이 실력과 무관하게 높은 지위를 획득하는 식이다.

그러나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의 몰락과 ‘고난의 행군’ 등 북한 내부의 사회적 모순으로 인한 병폐 등은 북한 정권에 대한 인민대중의 불만을 양산하며 통치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수백만 명이 기아에 허덕여 아사하는 상황 속에서 배급에 의존할 수 있는 건 당에 긴밀하게 연결된 간부 혹은 핵심 계급의 성분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친 부패를 심화시켰으며, 당의 보살핌에서 소외된 여타 성분의 사람들은 당에 대한 적대감을 더욱 가지게 된다. 실제로 이 당시 비판의 여론을 인식해 서인지 성분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 억압이 완화되었다고 한다. 앞서 다룬 영화 《보증》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80년대 중후반에 제작된 것임을 고려할 때, 이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성분분류사업에 대한 당의 노선 변화란 어떤 것인지 다시금 곱씹을 수 있을 것이다.

김일성 그 이후

앞서 서술하였듯 김일성 정권의 말기인 80년대에 들어서면 북한 사회를 공고히 유지했던 성분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항일과 혁

명을 직접적으로 겪은 1세대 이후의 세대들이 북한 사회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은 교육기관(김일성종합대학, 만경대혁명학원 등)을 설립하고 인재육성을 통해 혁명적 가치의 재생산을 대비해왔다(간대욱 2002, 70).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핵심성분 내에서의 재생산 작업이었을 뿐 동요와 적대 계급의 학생들이 실력을 통해 진학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애초 학업성적보다 추천에 의존하고 있는 대학입시제도는 당의 보증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학생을 제외한 일반 인민대중에게 있어서도 성분제도는 개선의 여지를 실감하기는 어려운 부동의 계급과 같은 것이다. 실제로 1993년 출판된 인민보안성의 내부 참고용 자료 <주민등록사업참고서>는 2020년 현재까지도 지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변화해온 사회상과 주민들의 성분구성의 변화를 성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방증한다. 이미 성분사업은 그 기획 의도와 달리 당 간부 부패, 무능력한 인사조직의 양산, 주민 차별과 억압 및 인권 탄압 등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문제의 하나임에도, 김일성 이후 불안정이 가속된 북한 사회에서의 성분문제는 변화의 의지마저 보이고 있지 않다. 정권이 고수하고 있는 성분의 '순수성'과 계급차별의 문제는 북한사회의 병폐이면서 동시에 내부적 결속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만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백두혈통'과 후계자론

북한에서 최고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김일성가의 후예여야 한다. 이는 성분 중에서도 가장 '순수한' 성분인 '백두혈통'임을 의미한다. 세습을 통한 정권 이양은 계급 타파를 부르짖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있으면 안 되는 모순적 행위임이 분명하지만, 이미 북한이 사회주의

의 이상적 이념과는 상당히 멀어져 있으며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진 지는 오래라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고난의 행군’, ‘사회주의 붕괴’, ‘대북제재’ 등 대내외적 위기를 수차례 겪은 북한은 애초 기획대로의 과학적 사회주의 대신 인류학적 개념으로서의 ‘혈통’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변모해왔다는 것을 앞에서 검토하였다. 성분에 대한 정치적 조건이 사회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듯, 북한 사회에서 최고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러한 성분에서 ‘순수성’에서 한 치의 의심도 들지 않는 ‘온전히 순수한 것’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기제는 다름 아닌 ‘물보다 진한 피’의 혈통이라는 것이다.

“수령의 직접적 계승자, 후계자는 오직 수령의 혁명사상을 가장 완벽하게 체현하고 그것을 옹호관철하기 위하여 한 목숨 바쳐 투쟁할 각오가 되어 있으며 탁월한 령도력과 천재적 예지를 가진 사람만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이런 사람만이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 혁명을 계속할 수 있으며 수령이 구상하고 령도하는 혁명위업을 계승발전시켜 더욱 빛내여 나갈 수 있습니다”(김정일, 함치영 1992, 105에서 재인용)

어떠한 기술적 명확함도 찾아볼 수 없는 수령의 조건은 오직 역대 최고지도자들의 말에서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최고지도자 이외의 사람들이 최고지도자의 조건을 논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환경적 조건의 불안정함이 계속되는 와중에 더 강한 ‘주체식’ 사회주의가 필요한 북한의 조건상 온전한 믿음을 담보할 수 있는 자여야 하며, 이는 곧 북한 정권의 유일한 사상적 기반인 ‘김일성’을 체현하는 자여야 한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장자로서 가장 유력한 후보였으며, 실제 최고지도자를 지냈다. 김정일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논란이 있었던 후계자론은 그러나 곧 ‘김일성을 닮은’ 김정은의 등장으로 사그라들었다. 김정일이 장자이며 외가 역시 김일성과 ‘항일빨치산’을 함께한 온전한 성분임에

반하여, 김정은의 어머니 고용희(1953~2004)는 이에 반해 '나쁜 성분'에 해당하는 재일교포 출신임을 고려할 때, 혈통의 순수성은 이미 흐려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사회구조와 성분분류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 사회에서, 성분의 오염을 뒤로 한 채 '김정은 이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겠다.

5. 나가며

지금까지 북한 사회가 이상적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 만든 ‘성분’이란 장치가 어떻게 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는지를 보았다. 정권의 기획을 집행하기 위한 체계적 ‘성분분류사업’과,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사회주의 이념형에서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낸 통제기제의 변모와 실천을 보았다. 특히 ‘고난의 행군’ 등의 총체적 사회 위기에도 불구하고, 성분사업의 ‘순수성’을 고집하고 ‘오염의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북한 정권의 노력은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이상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특히 8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으로 대표되는 배급체계의 붕괴를 전후하여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통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회유 수단을 만들어내었다. 살펴본 영화

《보증》이 대표적이었다. 영화가 공개되고 얼마지 않아 곧 집권한 김정일 시대에 ‘성분’은 다시 구체적인 주민 통제와 차별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변화가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었지만, 현실이 어찌되었든 여전히 집권세력의 이념은 ‘순수한’ 사회주의식 인간의 양성이라는 것에서 벗어난 적 없다.

2020년 현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혁명 5~6세대에 대해 국가의 배급에 의존하지 않고 시장을 통해 자급자족하며 성장한 ‘장마당 세대’가 사회의 주축으로 성장하면서 이들의 사상과 의식 상태를 면밀히 파악할 근거가 필요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에 대한 재조사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재조사사업의 의도는 고전적인 성분분류사업의 그것과 변함없는 것으로 보이며,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하고 자란’ 세대에 대한 ‘사상동향에의 세심한 감시’라는 상황적 맥락의 변화만이 있을 뿐이다.

김정은 그 자신도 혁명과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로 자라났음에도, ‘계속혁명론’ 혹은 ‘영원혁명론’의 주체사상에 의거해 출신성분에 대한 순수성을 재정립하려한다는 것은 다소 모순적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을 집중화시키는 것의 필요성의 차원에서 성분은 늘 동원되기 좋은 장치였다.

성분의 ‘순수성’은, 그 모순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일까? 성분분류사업을 유지해나가기 위한 북한 정권의 노력이 다음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를 지켜보는 것은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다. 그저,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북한 사회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최고지도자를 포함해서, 자신들의 이념의 순수성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자각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양산하는 시스템을 스스로 내려놓기를 기대할 뿐이다.

〈참고문헌〉

1) 북한 출처 자료(원자료)

김일성, 1992, 『세기와 더불어』,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1993, 『김일성선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1979, 『김일성저작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리종현, 2010, 『조선부르조아민족운동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안전부 출판사, 1993, 『주민등록사업참고서』.

장덕순·변창업, 1983, 『항일무장투쟁사』 2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탁진, 1984, 『김정일지도자(제2부)』, 평양: 동방사.

함치영, 1992, 『계속혁명에 관한 주체적 리해』,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 참고문헌

〈단행본〉

김성보 외, 2004,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북한 현대사』,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김찬정, 1992, 『비극의 抗日빨치산』, 동아일보사.

메리 더글라스, 1997, 『순수와 위험』, 현대미학사.

이기봉, 1992, 『빨치산의 진실』, 다나.

정병호, 2020, 『고난과 웃음의 나라: 문화인류학자의 북한 이야기』, 파주: 창비.

〈학술논문〉

- 간대욱, 2002, “김정일 시대 북한 권력엘리트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논문.
- 강영은, 2009, “북한 김정일 정권의 권력엘리트 구조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 김옥자, 2014, “만경대혁명학원 창립과 핵심인재양성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18(1), 115-136.
- 김용현, 2003, “로동신문 분석을 통한 북한정치 변화 연구: 1945~1950”, 『북한연구학회보』 7(1), 107-127.
- 김정훈, 1999, “남북한 지배담론의 민족주의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 김진철, 2010, “북한의 사회불평등 구조화 요인과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 박태상, 2009, “『군바바』와 북한의 역사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어문논집』 59(0), 403-438.
- 서재진, 1996,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 안성필, 2011, “북한 ‘민(民)’의 변천: 집권세력의 기획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논문.
- 윤재원, 2007, “북한 주권개념의 계보학”,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논문.
- 이교덕, 2003, “북한의 후계자론”,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03-12.
- 이규하, 2006, “북한체제의 사회통제기능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 전혜란, 2013, “북한 성분분류사업의 변천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논문.
- 차은지, 2014, “북한 사회구조 변화와 농민층의 사회불평등”,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 현인애, 2008, “북한의 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

교 석사논문.

〈기타 자료〉

북한연구소, 2011, “현대판 주홍글씨, 북한의 ‘출신성분’”, 『北韓』
479호: 143-144.

지역발전위원회, 2015, 『북한의 지역발전 현황에 관한 기초연구』,
서울: 지역발전위원회.

하윤아, 2020.02.19., “김정은, 인민보안성에 주민 ‘성분’ 재정리
지시…이유가?”, 〈DAILY NK〉. 2020.06.08. 접속.

U.S. Department of State, 2018,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8 Human
Rights Report*, 대한민국 통일부
자료제공.

_____, 2017,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7 Human
Rights Report*, 대한민국 통일부
자료제공.

감사의 말

한 학기 낯선 북한을 탐구하기에 여정표가 되어주신 정향진 교수님,
황혜림, 손성규 조교님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이 책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함께했던 학우들과 다소 갑작스런 부탁에도
친절히 응해주신 형에게 동지애와 고마움의 인사를 보냅니다.

고귀한 혈통, 수령님은 항일빨치산!

발행일 | 2020년 6월 16일

지은이 | 조성우

펴낸이 | 정향진

펴낸곳 | 북한의 인류학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이메일 | kumkum0614@snu.ac.kr

전 화 | (02)-880-6418

ISBN | 978-89-990614-3-1-35248

글 © 조성우 2020

가격 9900원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잘못된 책은 저자가 직접 바꾸어 드립니다.

◆ 북한 사회는 과연 평등할까?

사회주의 이념형(idealtypus)에 따르면 계급 간 불평등은 타파해야 할 제일의 사회모순이다. 그러나 건국이념으로 사회주의를 택해 고수해온 북한의 실정엔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집권세력을 기점으로 새로운 사회불평등 구조가 재편되어왔다. 특히 일제강점기 김일성과 함께 빨치산 활동을 했던 세력을 중심으로 한국전쟁 직후 '항일빨치산파'의 정치세력이 집권하면서 항일빨치산으로서의 활동경력은 이후 구조적 차별로 인한 사회적 우대의 중심이 된다. 1958년 전 주민의 성분을 조사한 것을 시작으로 점차 정치적 실체로 변한 '성분'은 전후 북한 사회의 안정화와 집권세력의 정당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새로운 계급 논리의 실질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더불어 북한에서 시작된 '고난의 행군' 등 경제적 위기로 인해 사회불평등 구조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이 현실화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이에 따라 성분분류 사업의 완화와 문화예술(영화 《보름》 등)을 통한 체제홍보의 전략 수정 등 조치를 취하며 정적인 사회불평등 구조에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듯 했다. 하지만 3대에 걸친 북한의 '백두혈통' 집권세력의 지지기반과 정당성은 여전히 '항일빨치산'의 역사에 기대고 있으며 그 위세 역시 여전하다. 변화해온 현대사 속 체제의 중심에 남아있는 '핵심' 성분, '항일빨치산파'의 기원과 이에 기대어 온 '백두혈통'을 추적함으로써 이념과 실제 사이의 격차를 알아보고자 한다.

